

12 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⑤ 『넓게 보는 주거학』



이 책은 인간과 주거, 디자인과 주거, 사회와 주거 등 여러 방면에서 주거를 해석한다.

(사진=언스플래쉬)



『넓게 보는 주거학』은 주거학연구회에서 출간한 주거학 입문 도서다.

조화 등의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를 통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8장 ‘주거와 실내환경’은 주거의 물리적 환경 요소 중 열 환경, 실내공기 질과 환기통풍의 공기 환경, 채광 조명등의 빛환경, 음환경 등을 통해 인간 중심의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분야인 ‘사회와 주거’는 총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9장 ‘주택정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택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국가의 경제와 정치체계에 따른 주택 분배와 공급체계의 유형 등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정책의 내용과 변천 과정을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다. 10장 ‘주거 복지’는 주거복지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들의 주거실태와 주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11장 ‘주거관리와 서비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택 형태인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 업무 내용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단독주택 관리,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한다.

주택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며 그 선택의 폭이 매우 한정적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주택의 유형을 접하게 되었고 주거 선호에 따라 우리가 살집을 선택하고 마감 재료를 골라야 하며 가구도 적절하게 선택하고 배치해야 한다. 주거라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측면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환경이다 보니 주거에 대한 이해는 주택의 물리적, 객관적인 환경인 건물 자체와 근린 환경, 주변 시설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친숙하고 특별한 장소로서의 사회심리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추천하는 『넓게 보는 주거학』이 주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좋은 입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 ‘주거’를 읽다



김 준 하
주거환경학과 교수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주택과 관련된 많은 방송 프로그램, 기사 및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집 꾸미기 또는 주택 가격, 집 찾기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최근 집이라는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집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에서 업무의 공간으로, 또한 취미의 공간으로, 집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학문 중 하나는 주거환경학이며, 이는 말 그대로 인간과 주택 그리고 이를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듯 주거환경학과는 인문, 사회, 경영, 디자인 분야가 결합된 융

합적이고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융합교육이 더욱 강조될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과학대학에 개설되어있기도 한 주거환경학과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그 정확한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주거환경학과를 소개할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내건축학과와 비슷한 학과라고 소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내건축학과가 공간의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주거환경학과는 공간의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공간의 거주자, 사회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과 조화로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전공도서에서 추천할 책은 주거학 연구회에서 집필한 『넓게 보는 주거학』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인간과 주거’, ‘디자인과 주거’ 그리고 ‘사회와 주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인간과 주거’ 분야는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 ‘주거의 의미’는 주거의 의미를 심리적,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주택(house)이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 주거(housing)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한 개념이다. 주거욕구, 주거가치, 주거선호와 주거 규범 그리고 주거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은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2장 ‘주거환경심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봄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들은 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가 등에 관련된 환경인지, 프라이버시, 개인 공간, 영역성, 과밀 등을 다루고 있다. 3장 ‘가족특성과 주거’는 독신자 증가, 노인 부부, 공동체 가족, 네트워크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그들만이 지향하는 독특한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

과 근린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에 대해 관련된 가족유형, 주거 생활주기, 주생활 양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장 ‘주거선택행동’은 어떤 집을 구매 혹은 임차할 것인지, 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renovation) 하게 되는지 등과 같은 주거행동에 대해서 주거 규범, 주거 결함, 주거 만족과 불만족, 주거 조절 행동, 주거 행동 과정 등과 더불어 서술한다. 마지막 5장 ‘주거와 문화’는 주택의 형태나 공간의 형성 과정과 주거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자연환경, 자원, 사회문화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두 번째 분야인 ‘디자인과 주거’는 총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6장 ‘주거공간의 계획’은 다양한 주택의 유형 그리고 가구의 배치 방법, 조닝(zoning) 방법 등의 주거공간 계획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두 번째 7장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은 인간의 생활환경 중 특히 실내환경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활동인 실내디자인에 대하여 선, 형태, 질감, 공간, 무늬, 색채, 균형, 리듬, 강조, 스케일과 비례,